

한·중 특수교사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 실태에 관한 연구

장민정*

우석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정재권**

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특수교사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중국과 한국 각각 146부씩 총 292명의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Ver. 17.0을 이용하여 교차분석과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한·중 양국 간 특수교사들의 여가활동 실태에 차이가 있다. 한국특수교사가 중국특수교사보다 여가활동을 위한 교습을 받은 경험과 휴일 여가활동 시간이 더 많고 중국특수교사가 한국특수교사보다 한 달에 사용하는 여가활동 비용이 좀 더 많다.

둘째, 한·중 양국 간 특수교사들의 생활만족도 실태에 차이가 있다. 의식주, 일(직업), 경제, 사회생활과 여가생활, 행복감, 자율성과 자아감 영역에서 중국특수교사가 한국특수교사보다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 및 정신건강 영역에서 한국특수교사가 중국특수교사보다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여가활동, 생활만족도, 특수교사

* 제1저자(kwuse@hanmail.net)

** 교신저자(cjk5207@woosuk.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정보화시대로서 노동시간의 단축,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 여가활동의 확대에 인하여 여가의 대중화, 보편화 현상이 지속화되고 있다. 여가활동은 정신적·신체적 피로를 풀고 새로운 힘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나 욕구불만, 갈등, 좌절감, 정서적 불안 등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여가활동을 통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역할수행의 기술과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터득함으로써 타인과의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권이중, 1994).

여가는 이제 소수의 혜택 받은 사람들만의 특혜가 아니라 국민 다수가 누려야 하는 권리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었다. 여가의 향유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여가시간이 증대됨에 따라 여가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시대가 되었다. 이는 곧 우리들이 여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로부터 해방된 공간과 시간을 의미하는 여가 선용은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과제가 되었고, 이제는 싫든 좋든 간에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이 결정되게 되었다. 그런데 여가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만이 그것을 보다 더 잘 향유할 수 있다. 일찍이 소크라테스는 ‘한 개인의 삶의 질은 그가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였으며, 사회학자 베블렌은 ‘한 개인의 여가활동이 곧바로 그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계층을 구분 짓는 중요한 준거가 된다’ 고 강조한 바 있다(김용우, 2007).

특수학교 교사의 업무는 하나부터 열까지 교사의 손을 필요로 하고, 개인차가 심하며 심리적 특성이 일반 학생들과는 다른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그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을 하여야 하는 어려움과 학부모나 지역 사회에 대한 교육도 책임지고 있는 반면 지원체제는 미약하여, 교사들은 연구시간의 부족 및 업무부담 가중, 과중한 업무로 인한 갈등 및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또한 특수학교 내에서도 사회적인 면에서 여가공간과 시설의 미비 그리고 시간 부족 현상 등으로 인하여 여가활동에 많은 장애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특수학교는 교육환경의 변화가 많고, 주위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소이므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교사가 여가활동에서 얻은 만족감은 장애학생이 자율적으로 자기형성 또는 자기 발전적인 가능성을 실현 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조력하는 조력자로

서의 교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의 일상생활과 인격 형성 및 정서적인 모든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주 5일 근무제 실시의 확대, ‘well-being’ 열풍 등으로 여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 그로 인해 여가활동은 단순히 자유 시간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자기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여가활동은 우리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기도 하며 여가활동을 통해 사람들은 삶의 활력을 얻고 삶의 만족을 얻기도 한다. 결국 여가활동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은 개인의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강미경, 2009).

생활만족도는 개인이나 가족의 복지감, 생활의 질, 행복감 등의 유사한 개념과 함께 행복 또는 복지의 측정기준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만족이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인간이 심리적으로 또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느낌으로서, 일정한 목표나 요구의 달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감정 상태를 말한다. 즉 생활만족도는 생활전체에 대한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 감정이며, 일종의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생활의 실제와 기대간의 일치에서 오는 개인의 관점에 따른 주관적, 개인적 현상으로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게 된다(윤은경, 2007).

21세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르게 많이 변했다. 이것은 지역적·국가적 차원을 벗어나 세계적인 차원에서 인간과 인간, 국가와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지식과 정보의 생산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창출이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앞을 다투어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은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를 촉진시키고 있다. 따라서 비교연구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추세이다. 비교연구는 과거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현재를 정확히 알게 하고, 교육의 미래가 어떠한지 하는지 알 수 있게 해 준다. 비교연구는 정책수립자와 행정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으며, 가치 있는 교사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장호, 2011).

21세기 들어서 한·중 양국은 정치, 경제, 사회 및 교육 등의 각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통해 커다란 발전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교육부문 특히 특수교육 영역에서는 아직도 교류가 미진한 상태이다. 또한 중국은 특수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에 대한 연구가 늦게 시작되어 특수교사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그러므로 중국과 문화배경이 비슷한 나라의 연구경험을 참고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중국과 한국은 모두 동아시아라는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공통점도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은 가장 좋은 비교 대상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양국 간 특수교사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 실태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밝힘으로써, 특수교사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앞으로 더 좋은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 특수교사들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 실태를 살펴해보는데 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양국 간 특수교사들의 여가활동 실태의 차이를 알아본다.

둘째, 한·중 양국 간 특수교사들의 생활만족도 실태의 차이를 알아본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특수교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에서는 전라남도·북도 지역에 위치한 특수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국의 경우, 광둥성 [广东省]에 위치한 특수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가별로 각각 150부씩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한국에서 147부, 중국에서는 148부가 회수되었다. 이후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대상자(한국 1부, 중국 2부)가 제외되어, 중국과 한국 각각 146부씩 총 292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특수교사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 실태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선행연구 백승헌(2002)과 강미경(2009)에서 사용한 도구를 참고로, 문헌 분석을 통해 설문지 문항을 보완하고, 설문지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수교육과 교수의 조언을 받아 직접 제작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특수교사의 여가활동 실태와 생활만족도 실태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중국어 설문지는 연구자가 번역한 후에

중국어과 교수의 검사를 거쳤다. 특수교사의 생활만족도 실태 부분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배점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문항의 영역 및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지 문항의 영역 및 신뢰도

항 목	문항 내용	문항 수	Cronbach α
여가활동 실태	경험 여부, 비용, 이용 시설, 평일 여가활동 시간, 휴일 여가활동 시간, 평일 여가활동내용, 방학 여가활동 내용, 하고 싶은 여가활동 각 1문항	8	.762
생활만족도 실태	의식주(5), 인간관계(3), 신체 및 정신건강(5), 일/직업(2), 경제(2), 사회생활 및 여가생활(4), 행복감(3), 자율성 및 자아감(3)문항	27	.899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11년 6월 1일 ~ 10월 1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6월 20일 ~ 8월 20일까지 중국 특수교사 150명과 한국 특수교사 150명, 총 300명의 연구대상자에게 본 설문지를 발송한 후 다시 회수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한국조사는 전라도에 있는 특수학교 8개교에 연락하여 연구목적과 설문지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후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으며, 직접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설문지와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여 발송하였다. 거리상 이유로 중국조사는 광둥성에 있는 특수학교 10개교에 연락하여 연구목적과 설문지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후 이메일로 설문지를 보내주고 조사하였다. 조사가 끝난 후 다시 이메일로 설문지를 반송하였다.

4.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한·중 양국 간 여가활동 실태 비교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한·중 양국 간 생활만족도 실태 비교는 t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한·중 양국 간 특수교사들의 여가활동 실태 비교

1) 여가활동을 위한 교습(혹은 안내)을 받은 경험 여부

특수교사가 여가활동을 위한 교습을 받은 경험에 대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여가활동을 위한 교습(혹은 안내)을 받은 경험 여부

구분	교습을 받은 경험 여부		합계	χ^2
	유	무		
한국	61(41.8)	85(58.2)	146(100)	21.361***
중국	25(17.1)	121(82.9)	146(100)	
전체	86(29.5)	206(70.5)	292(100)	

*** $p < .001$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가활동을 위한 교습을 받은 경험이 있다’ 라고 응답한 한국 특수교사 61명(41.8%), 중국 특수교사 25명(17.1%)보다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여가활동을 위한 교습을 받은 경험이 없다’ 라고 응답한 경우는 중국 특수교사가 121명(82.9%)으로 한국 특수교사 85명(58.2%)보다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에 따라 여가활동을 위한 교습(혹은 안내)을 받은 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chi^2 = 21.361, p <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2) 여가활동 비용

특수교사가 한 달에 사용하는 여가활동 비용에 대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여가활동 비용

구분	5만원 미만	5~10만원	10~15만원	15~20만원	20만원 이상	합계	χ^2
한국	24(16.4)	47(32.2)	35(24.0)	25(17.1)	15(10.3)	146(100)	23.645***
중국	29(19.9)	36(24.7)	27(18.5)	10(6.8)	44(30.1)	146(100)	
전체	53(18.2)	83(28.4)	62(21.2)	35(12.0)	59(20.2)	292(100)	

*** $p < .001$

한국과 중국 특수교사가 한 달에 사용하는 여가활동 비용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한국 특수교사의 경우, '5~10만원' 이 47명(32.2%)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다음으로 '10~15만원' 이 35명(24.0%), '15~20만원' 이 25명(17.1%), '5만원 미만' 이 24명(16.4%), '20만원 이상' 이 15명(10.3%)의 순으로 응답을 보였다. 중국 특수교사의 경우, '20만원 이상' 이 44명(30.1%)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다음으로 '5~10만원' 이 36명(24.7%), '5만원 미만' 이 29명(19.9%), '10~15만원' 이 27명(18.5%), '15~20만원' 이 10명(6.8%)의 순으로 응답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 특수교사는 한 달에 10만원 이상 쓴 경우가 51.4%로 나타났고, 중국 특수교사는 한 달에 10만원 이상 쓴 경우가 55.4%로 나타났다. 국가별에 따라 특수교사가 한 달에 사용하는 여가활동 비용에 대한 질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x^2=23.645$, $p<.001$). 따라서 중국 특수교사들이 한국 특수교사보다 한 달에 사용하는 여가활동 비용이 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3) 여가활동 이용 시설

특수교사가 자주 이용하는 여가활동 시설에 대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여가활동 이용 시설

구분	스포츠 시설	공원/산	유적지/예술 시설	유흥시설	기타	합계	x^2
한국	57(39.0)	39(26.7)	29(19.9)	9(6.2)	12(8.2)	146(100)	23.563***
중국	36(24.7)	42(28.8)	15(10.3)	18(12.3)	35(23.9)	146(100)	
전체	93(31.8)	81(27.7)	44(15.1)	27(9.2)	47(16.2)	292(100)	

*** $p<.001$

한국과 중국 특수교사가 자주 이용하는 여가활동 내용 시설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한국 특수교사의 경우, '스포츠시설' 이 57명(39.0%)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다음으로 '공원/산' 이 39명(26.7%), '유적지/예술시설' 이 29명(19.9%), '기타' 가 12명(8.2%), '유흥시설' 이 9명(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 '학원', '집', '쇼핑', '오토캠핑', '특별히 정해진 것 없이 상황에 따라' 등이 조사되었다. 중국 특수교사의 경우, '공원/산' 이 42명(28.8%)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다음으로 '스포츠시설' 이 36명(24.7%), '기타' 가 35명(23.9%), '유흥시설' 이 18명(12.3%), '유적지/예술시설' 이 15명

(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 ‘집’, ‘서점’, ‘쇼핑’, ‘많다’ 등이 조사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한국과 중국 특수교사들은 여가활동 시 ‘스포츠시설’ 과 ‘공원/산’ 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가에 따라 특수교사가 자주 이용하는 여가활동 내용 시설에 대한 질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x^2=23.563,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4) 근무시간 이후의 여가활동 시간

특수교사의 평일 근무시간 이후 여가활동 시간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근무시간 이후의 여가활동 시간

구분	1시간 미만	1~2시간	3~4시간	4시간 이상	합계	x^2
한국	58(39.7)	74(50.7)	14(9.6)	0(0.0)	146(100)	8.672*
중국	59(40.4)	72(49.3)	8(5.5)	7(4.8)	146(100)	
전체	117(40.1)	146(50.0)	22(7.5)	7(2.4)	292(100)	

* $p<.05$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과 중국 특수교사들은 평일 근무시간 이후에 여가활동 시간이 똑같이 ‘1~2시간’, ‘1시간 미만’, ‘3~4시간’, ‘4시간 이상’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근무시간 이후에 여가활동 시간에 대한 한국 응답자는 2시간이내가 90.4%로 나타났고 중국 응답자는 2시간이내가 89.7%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한국과 중국 특수교사들은 평일 근무시간 이후에 여가활동 시간이 거의 비슷하다고 나타났다. 하지만 ‘4시간 이상’으로 응답한 한국 특수교사가 없는 반면에 중국 특수교사는 7명(4.8%)이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과 중국 특수교사들은 근무시간 이후에 여가활동 시간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국가에 따라 특수교사의 평일 근무시간 이후에 여가활동 시간에 대한 질문에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x^2=8.672,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5) 휴일의 여가활동 시간

특수교사의 휴일 여가활동 시간에 대한 결과는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표 6> 휴일의 여가활동 시간

구분	1~2시간	3~4시간	4시간 이상	하루종일	합계	x^2
한국	62(42.5)	58(39.7)	19(13.0)	7(4.8)	146(100)	11.110*
중국	50(34.2)	47(32.2)	42(28.8)	7(4.8)	146(100)	
전체	112(38.4)	105(36.0)	61(20.8)	14(4.8)	292(100)	

* $p < .05$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과 중국 특수교사들은 휴일 여가활동 시간에 똑같이 ‘1~2시간’, ‘3~4시간’, ‘4시간 이상’, ‘하루 종일’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1~2시간’으로 응답한 한국 특수교사는 62명(42.5%)으로 중국 특수교사 50명(34.2%)보다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3~4시간’으로 응답한 한국 특수교사는 58명(39.7%)으로 중국 특수교사 47명(32.2%)보다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 특수교사 휴일 여가활동 시간은 1~4시간이 82.2%로 나타났고, 중국 특수교사 휴일 여가활동 시간은 1~4시간이 66.4%로 나타났다. 국가에 따라 특수교사의 휴일 여가활동 시간에 대한 질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x^2=11.110$, $p < .05$). 따라서 한국 특수교사들이 중국 특수교사들보다 휴일 여가활동 시간이 더 많다.

6) 근무시간 이후의 여가활동 내용

특수교사가 평일 근무시간 이후의 여가활동 내용에 대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근무시간 이후의 여가활동 내용

구분	취미 교양	오락 사교	감상 관람	건강 스포츠	행락 관광	합계	x^2
한국	55(37.7)	22(15.1)	13(8.9)	48(32.8)	8(5.5)	146(100)	13.877**
중국	53(36.3)	46(31.5)	12(8.2)	28(19.2)	7(4.8)	146(100)	
전체	108(36.9)	68(23.3)	25(8.6)	76(26.1)	15(5.1)	292(100)	

** $p < .01$

한국과 중국 특수교사가 평일 근무시간 이후의 여가활동 내용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한국 특수교사의 경우, ‘취미·교양’이 55명

(37.7%)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다음으로 ‘건강·스포츠’가 48명(32.8%), ‘오락·사교’가 22명(15.1%), ‘감상·관람’이 13명(8.9%), ‘행락·관광’이 8명(5.5%)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특수교사의 경우, ‘취미·교양’이 53명(36.3%)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다음으로 ‘오락·사교’가 46명(31.5%), ‘건강·스포츠’가 28명(19.2%), ‘감상·관람’이 12명(8.2%), ‘행락·관광’이 7명(4.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보면 한국과 중국 특수교사들은 ‘취미·교양’ 활동을 제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 특수교사들은 ‘오락·사교’보다 ‘건강·스포츠’ 활동을 더 많이 하는 반면에 중국 특수교사들은 ‘건강·스포츠’보다 ‘오락·사교’ 활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국가에 따라 특수교사가 평일 근무시간 이후의 여가활동 내용에 대한 질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chi^2=13.877,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7) 방학기간의 여가활동 내용

특수교사의 방학기간 여가활동 내용에 대한 결과는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표 8> 방학기간의 여가활동 내용

구분	취미 교양	오락 사교	감상 관람	건강 스포츠	행락 관광	합계	χ^2
한국	29(19.9)	6(4.1)	13(8.9)	27(18.5)	71(48.6)	146(100)	55.313***
중국	20(13.8)	52(35.6)	17(11.6)	27(18.5)	30(20.5)	146(100)	
전체	49(16.8)	58(19.8)	30(10.3)	54(18.5)	101(34.6)	292(100)	

*** $p<.001$

한국과 중국 특수교사의 방학기간 여가활동 내용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표 8>과 같이 나타나났다. 한국 특수교사의 경우, ‘행락·관광’이 71명(48.6%)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다음으로 ‘취미·교양’이 29명(19.9%), ‘건강·스포츠’가 27명(18.5%), ‘감상·관람’이 13명(8.9%), ‘오락·사교’가 6명(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특수교사의 경우, ‘오락·사교’가 52명(35.6%)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다음으로 ‘행락·관광’이 30명(20.5%), ‘건강·스포츠’가 27명(18.5%), ‘취미·교양’이 20명(13.8%), ‘감상·관람’이 17명(1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보면 한국과 중국 특수교사들은 방학기간 여가활동 할 때 ‘행락·관광’ 활동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중국 특수교사가 제일 많이 응답한 ‘오락·사교’ 활동에 한국 특수교사는 가장 낮은 응답을 하였다. 국가에 따

라 특수교사의 방학기간 여가활동 내용에 대한 질문에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chi^2=55.313,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8) 여가시간이 늘어나면 하고 싶은 여가활동 내용

주 5일 수업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나면 특수교사가 하고 싶은 여가활동 내용에 대한 결과는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표 9> 여가시간이 늘어나면 하고 싶은 여가활동 내용

구분	취미 교양	오락 사교	감상 관람	건강 스포츠	행락 관광	합계	χ^2
한국	19(13.0)	3(2.1)	22(15.1)	35(23.9)	67(45.9)	146(100)	12.385*
중국	31(21.2)	13(8.9)	13(8.9)	32(21.9)	57(39.1)	146(100)	
전체	50(17.1)	16(5.5)	35(12.0)	67(22.9)	124(42.5)	292(100)	

* $p<.05$

주 5일 수업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나면 한국과 중국 특수교사가 하고 싶은 여가활동 내용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표 9>와 같이 나타나났다. ‘행락·관광’으로 응답한 한국 특수교사 67명(45.9%), 중국 특수교사 57명(39.1%)보다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건강·스포츠’로 응답한 한국 특수교사 35명(23.9%), 중국 특수교사 32명(21.9%)보다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 특수교사의 경우 ‘감상·관람’이 22명(15.1%), ‘취미·교양’이 19명(13.0%), ‘오락·사교’가 3명(2.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특수교사의 경우 ‘취미·교양’이 31명(21.2%), ‘오락·사교’와 ‘감상·관람’이 똑같이 13명(8.9%)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주 5일 수업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나면 60% 이상의 한국과 중국 특수교사들은 똑같이 ‘행락·관광’과 ‘건강·스포츠’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국가에 따라 특수교사가 주 5일 수업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나면 하고 싶은 여가활동 내용에 대한 질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chi^2=12.385,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2. 한·중 양국 간 특수교사들의 생활만족도 실태 비교

1) 의식주 만족도

특수교사가 의식주 영역 만족도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의식주 만족도

생활만족 범주	한국	중국	t
	M(SD)	M(SD)	
거 주 지	2.22(.818)	2.53(1.005)	-2.939**
사생활보장	2.47(.744)	2.62(1.152)	-1.388
일 상 용 품	2.35(.701)	2.88(1.107)	-4.863***
음 식	2.32(.653)	2.93(1.167)	-5.509***
옷	2.40(.670)	2.55(.872)	-1.581
전 체	2.35(.504)	2.70(.822)	-4.397***

** $p < .01$, *** $p < .001$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식주 만족도에 대한 중국 특수교사 인식의 전체평균은 2.70로 한국 특수교사 2.35보다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t = -4.397, p < .001$). 즉, 중국 특수교사가 한국 특수교사보다 의식주 만족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하위영역별로 분석해 보면, 한국과 중국 가장 많은 차이가 나는 항목영역은 ‘일상용품’과 ‘음식’이다. ‘일상용품’에서는 중국 특수교사가 2.88로 한국 특수교사의 2.35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이었다($t = -4.863, p < .001$). ‘음식’에서는 중국 특수교사가 2.93로 한국 특수교사의 2.32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이었다($t = -5.509, p < .001$). ‘거주지’에서도 중국 특수교사가 2.53로 한국 특수교사의 2.22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이었다($t = -2.939, p < .01$).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의식주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중국 특수교사 집단이 한국 특수교사 집단보다 만족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2) 인간관계 만족도

특수교사가 인간관계 영역 만족도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인간관계 만족도

생활만족 범주	한국	중국	t
	M(SD)	M(SD)	
친 구 관 계	2.46(.716)	2.55(.822)	-1.063
이성, 배우자 관계	2.32(.900)	2.29(.903)	.195
가 족 관 계	1.98(.690)	1.90(.988)	.824
전 체	2.25(.529)	2.25(.674)	.032

한국과 중국 특수교사들 간에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 결과 <표 11>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간관계하위영역 ‘친구관계’, ‘이성, 배우자 관계’, ‘가족관계’ 에서 한국과 중국 특수교사들은 모두 비슷한 수준의 만족도를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신체 및 정신건강 만족도

특수교사가 신체 및 정신건강 영역 만족도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12>와 같이 나타났다.

<표 12> 신체 및 정신건강 만족도

생활만족 범주	한국	중국	t
	M(SD)	M(SD)	
심 리 상 태	2.62(.970)	2.42(1.185)	1.513
직면하고 있는 문제	3.51(.934)	2.90(1.106)	5.145***
방해되는 일	3.42(.952)	2.99(1.123)	3.484**
신 체 건 강	2.87(.941)	2.61(1.040)	2.242*
정 신 건 강	2.76(.949)	2.58(1.113)	1.528
전 체	3.04(.430)	2.70(.623)	5.354***

* $p < .05$, ** $p < .01$, *** $p < .001$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 및 정신건강 만족도에 대한 한국 특수교사 인식의 전체평균은 3.04로 중국 특수교사 2.70보다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t=5.354$, $p < .001$). 즉, 한국 특수교사가 중국 특수교사보다 신체 및 정신건강 만족도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하위영역별로

분석해 보면, 한국과 중국 가장 많은 차이가 나는 항목영역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서는 한국 특수교사가 3.51로 중국 특수교사의 2.90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이었다($t=5.145, p<.001$). 다음으로 ‘방해되는 일’에서는 한국 특수교사가 3.42로 중국 특수교사의 2.99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이었다($t=3.484, p<.01$). 그리고 ‘신체건강’에서도 한국 특수교사가 2.87로 중국 특수교사의 2.61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이었다($t=2.242, p<.05$).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신체 및 정신건강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한국 특수교사 집단이 중국 특수교사 집단보다 만족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4) 일(직업) 만족도

특수교사가 일(직업) 영역 만족도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일(직업) 만족도

생활만족 범주	한국	중국	t
	M(SD)	M(SD)	
일의 만족	2.39(.800)	2.60(1.027)	-1.971*
일의 효과	2.56(.847)	3.03(1.141)	-4.019***
전 체	2.48(.737)	2.82(.977)	-3.382***

* $p<.05$, *** $p<.001$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직업) 만족도에 대한 중국 특수교사 인식의 전체평균은 2.82로 한국 특수교사 2.48보다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t=-3.382, p<.001$). 즉, 중국 특수교사가 한국 특수교사보다 일(직업) 만족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하위영역별로 분석해 보면, 차이가 크게 나는 ‘일의 효과’에서 중국 특수교사가 3.03로 한국 특수교사의 2.56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이었다($t=-4.019, p<.001$). ‘일의 만족’에서는 중국 특수교사가 2.60로 한국 특수교사의 2.39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이었다($t=-1.971, p<.05$).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일(직업)의 하위 영역에서 중국 특수교사 집단이 한국 특수교사 집단보다 만족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5) 경제 만족도

특수교사가 경제 영역 만족도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경제 만족도

생활만족 범주	한국	중국	t
	M(SD)	M(SD)	
수입	2.74(.839)	3.40(1.212)	-5.390***
생활비 지출	2.93(.828)	3.02(.986)	-.836
전체	2.84(.745)	3.21(1.006)	-3.601***

*** $p < .001$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 만족도에 대한 중국 특수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3.21로 한국 특수교사 2.84보다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t = -3.601, p < .001$). 즉, 중국 특수교사가 한국 특수교사보다 경제 만족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위영역 ‘수입’을 분석해 보면, 중국 특수교사가 3.40로 한국 특수교사의 2.74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이었다($t = -5.390, p < .001$). 그러나 ‘생활비 지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과 중국 특수교사들은 비슷한 수준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사회생활 및 여가생활 만족도

특수교사가 사회생활 및 여가생활 영역 만족도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15>와 같이 나타났다.

<표 15> 사회생활 및 여가생활 만족도

생활만족 범주	한국	중국	t
	M(SD)	M(SD)	
사회생활	2.52(.726)	2.94(1.032)	-4.001***
하루를 보내는 방법	2.78(.843)	2.88(.898)	-1.008
여가활동	2.63(.863)	2.80(.876)	-1.683
저녁시간이나 주말	2.70(.850)	2.81(.905)	-1.119
전체	2.66(.659)	2.86(.708)	-2.531*

* $p < .05$, *** $p < .001$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생활 및 여가생활 만족도에 대한 중국 특수교사 인식의 전체평균은 2.86로 한국 특수교사 2.66보다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t=-2.531, p<.05$). 즉, 중국 특수교사가 한국 특수교사보다 사회생활 및 여가생활 만족도가 약간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하위영역별로 분석해 보면, 차이가 크게 나는 ‘사회생활’에서 중국 특수교사가 2.94로 한국 특수교사의 2.52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이었다($t=-4.001, p<.001$). 그러나 사회생활 및 여가생활 하위영역 ‘하루를 보내는 방법’, ‘여가활동’, ‘저녁시간이나 주말’의 비교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과 중국 특수교사들은 모두 비슷한 수준의 만족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7) 행복감 만족도

특수교사가 행복감 영역 만족도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행복감 만족도

생활만족 범주	한국	중국	t
	M(SD)	M(SD)	
현재 삶	2.34(.717)	2.72(1.029)	-3.696***
현재의 행복	2.24(.755)	2.42(1.009)	-1.773
기쁨	2.34(.765)	2.60(.936)	-2.532*
전체	2.31(.693)	2.58(.845)	-3.029**

* $p<.05$, ** $p<.01$, *** $p<.001$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복감 만족도에 대한 중국 특수교사 인식의 전체평균은 2.58로 한국 특수교사 2.31보다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t=-3.029, p<.01$). 즉, 중국 특수교사가 한국 특수교사보다 행복감 만족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하위영역별로 분석해 보면, 차이가 크게 나는 ‘현재의 삶’에서 중국 특수교사가 2.72로 한국 특수교사의 2.34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이었다($t=-3.696, p<.001$). 다음으로 ‘기쁨’에서는 중국 특수교사가 2.60로 한국 특수교사의 2.34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이었다($t=-2.532, p<.05$). 그러나 하위영역 ‘현재의 행복’의 비교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과 중국 특

수교사들은 비슷한 수준의 만족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행복감의 하위 영역에서 중국 특수교사 집단이 한국 특수교사 집단보다 만족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8) 자율성 및 자아감 만족도

특수교사가 자율성 및 자아감 영역 만족도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17>과 같이 나타났다.

<표 17> 자율성 및 자아감 만족도

생활만족 범주	한국	중국	t
	M(SD)	M(SD)	
자 유	2.49(.912)	2.77(1.057)	-2.431*
가 치	2.04(.673)	2.14(.876)	-1.049
자 신	2.13(.707)	2.38(.889)	-2.696**
전 체	2.22(.631)	2.43(.769)	-2.552*

* $p < .05$, ** $p < .01$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율성 및 자아감 만족도에 대한 중국 특수교사 인식의 전체평균은 2.43로 한국 특수교사 2.22보다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t = -2.552, p < .05$). 즉, 중국 특수교사가 한국 특수교사보다 자율성 및 자아감 만족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하위영역 별로 분석해 보면, ‘자신’에서는 중국 특수교사가 2.38로 한국 특수교사의 2.13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이었다($t = -2.696, p < .01$). 다음 ‘자유’에서는 중국 특수교사가 2.77로 한국 특수교사의 2.49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이었다($t = -2.431, p < .05$). 그러나 하위영역 ‘가치’의 비교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과 중국 특수교사들은 비슷한 수준의 만족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자율성 및 자아감의 하위 영역에서 중국 특수교사 집단이 한국 특수교사 집단보다 만족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양국 간 특수교사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 실태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밝힘으로써, 특수교사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더 좋은 특수교육 교사현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한·중 양국 간 특수교사들의 여가활동 실태에 차이가 있다. 한국과 중국 특수교사의 반응을 분석해보면 한국 특수교사가 중국 특수교사보다 여가활동을 위한 교습(혹은 안내)을 더 많이 받았다. 한 달에 사용하는 여가활동 비용에 대한 분석 결과, 한 달에 10만원 이상 쓰는 경우, 중국 특수교사가 한국 특수교사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여 중국 특수교사들이 한국 특수교사들보다 한 달에 사용하는 여가활동 비용이 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자주 이용하는 여가활동 내용 시설에 대한 분석 결과, 한국과 중국 특수교사들은 여가활동 할 때 ‘스포츠시설’ 과 ‘공원/산’ 제일 많이 이용한다. 평일 근무시간 이후에 여가활동 시간에 대해 한국 ‘2시간 이내’ 응답자와 중국 ‘2시간 이내’ 응답자가 비슷한 높은 비율로 나타나 한국과 중국 특수교사들의 평일 근무시간 이후에 여가활동 시간은 거의 비슷하다. 또한 휴일 여가활동 시간은 ‘1~4시간’ 을 택하는 한국 특수교사가 중국 특수교사보다 높은 응답률로 나타나 한국 특수교사들이 중국 특수교사들보다 휴일 여가활동 시간이 더 많았다.

그리고 평일 근무시간 이후의 여가활동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 한국 특수교사들은 ‘오락·사교’ 보다 ‘건강·스포츠’ 활동을 더 많이 하는 반면에 중국 특수교사들은 ‘건강·스포츠’ 보다 ‘오락·사교’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 특수교사들은 방학기간 여가활동 시에 ‘행락·관광’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였고, 중국 특수교사가 가장 많이 응답한 ‘오락·사교’ 활동에 한국 특수교사는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주 5일 수업제로 여가시간이 늘어나면 반 수 이상의 한국과 중국 특수교사들은 똑같이 ‘행락·관광’ 과 ‘건강·스포츠’ 활동을 하고 싶다고 답하여 이를 통해 건강관리 및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둘째, 한·중 양국 간 특수교사들의 생활만족도 실태에 차이가 있다. 의식주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중국 특수교사 집단이 한국 특수교사 집단보다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 ‘일상용품’ 과 ‘음식’ 이 가장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신체 및 정신건강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한국 특수교사 집단이 중국 특수교사 집단보다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 가 가장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일(직업), 경제, 사회생활과 여가생활, 행복감, 자

울성과 자아감 총 5개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 모두 중국 특수교사 집단이 한국 특수교사 집단보다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직업) 영역 중의 '일의 효과', 경제 영역 중의 '수입', 사회생활과 여가생활 영역 중의 '사회생활', 행복감 영역 중의 '현재의 삶' 에서 한국 특수교사보다 중국 특수교사들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중국보다 경제와 생활수준이 높지만 오히려 한국 특수교사보다 중국 특수교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 특수교사보다 여가활동을 위한 교습 경험과 여가활동 시간이 더 많은 한국 특수교사들이 의식주, 일(직업), 경제, 사회생활과 여가생활, 행복감, 자율성과 자아감 총 6개 영역에서 낮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특수교육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특수교사들의 만족도를 높여 특수교육 영역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의 특수교육 영역에서의 활발한 교류 형성이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 전라도와 중국 광둥성의 특수교사만을 조사한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다른 지역을 포함하여 한국과 중국 전체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한국과 중국 특수교사의 성별, 연령, 결혼 여부, 교직경력 등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이중 (1994). **사회교육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 김용우 (2007). 교사의 여가활동 참여와 인지된 삶의 질과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 강미경 (2009).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의 여가활동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 윤은경 (2007). 성인 장애인 여가활동 참여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장호 (2011). 중국과 한국의 중학교 교육과정 비교 분석 연구: ICT 관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백승현 (2002). 주 5일 근무형태 변화에 따른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A Report for Korean · Chinese Special Education Teachers' Resort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Zhang, Min Ting

Woosuk University

Chung, Jae Kweon

Woosuk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carried out doing surveys on 292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 order to find out their resort activities and their life satisfaction. The goal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o know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Chinese special education teachers about resort activities. Second, To know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Chinese special education teachers about life-satisfaction.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Chinese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 resort activities. Chinese special education teachers had less training for resort activities contrast to Korean special education teachers but they had a lot more expenses using per month during resort activities. And Korean special education teachers had more resort activity time on day off.

Secondly,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Chinese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 life satisfaction. Chinese special education teachers had a lot higher satisfaction on their food, clothing and shelter. Whereas Korean special education teachers had a lot higher satisfaction on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while analysing the 5 categories of work, economic, social-life and resort activities, happiness, ego and autonomy it showed that Chinese special education teachers had higher satisfactions than Korean special education teachers.

Key Words

: resort activities, life satisfaction, special education teacher

논문 접수: 2011. 11. 05 심사 시작: 2011. 11. 10 게재 확정: 2011. 12. 26